한국문학논총 제53집(2009. 12) 231~261쪽

〈何生奇遇傳〉과 육체의 서사적 재현

정 규 식*

차 례

Ⅰ. 문제 제기
Ⅱ. 육체의 서사적 재현 양상
1. 육체의 사물화와 존재의 불연속
2.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과 환유적 재구성
3. 육체의 탈사물화와 존재의 연속
Ⅲ.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何生奇遇傳>에 형상화된 육체의 서사적 재현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작품에는 여성의 육체가 가족이라는 제도와 사회적 권력에 의해 사물화(事物化)되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부모가 지은 죄의 대가를 딸의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육체에 대한 처벌로 대신한다. 그 과정에서 여인의 현실적 육체는 해체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물화는 하생으로 인하여 극복된다. 사물화되어 버린 여성을 만나게 된 하생은, 그녀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응시하게 되고 나아가 그녀의 육체를 환유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사물화된 여성의 육체는 환유적으로 재구성되어 현실계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육체의 사물화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 여인의 부모는 딸의 환생을 도와준 하생을 마땅치 않게 여겨 딸과 하생의 혼인을 거부한다. 그러자 여인은 육체를 혹사시키는 방법으로 부모의 뜻에 저항하며 하생과의 인연을 강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인의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고 하생과 여인의 혼인을 승낙한다. 사물화되어 있던 여인의 육체가 완전한 탈사물화되는 순간이다. 가족이나 사회에 예속되어 있던 여인의 육체가 자신이 선택한 하생에게로 귀결되면서 제도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흥미있는 것은 존재의 불연속에 있던 하생과 여인이 육체의 탈사물화와 더불어 존재의 연속을 담보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何生奇遇傳>에 형상화되어 있는 육체의 서사적 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何生奇遇傳>, 육체, 서사적 재현, 사물화, 환유적 재구성, 탈사물화, 성적 욕망, 정체성

Ⅰ. 문제 제기

서사물의 분석에 있어 육체가 어떻게 상징되고 상상되었나를 밝히는 것은, 육체가 의미의 원천이 되는 동시에 의미의 중심임을, 또한 서사적 언술의 주요한 매개[1]로서 육체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밝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육체는 의미생성의 장소로서 서사적 플롯의 기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사실과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1) 피터 부룩스, 이봉지 · 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14쪽.

육체의 서사적 기호화는 주체, 욕망, 권력, 이데올로기, 지식, 쾌락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재론적 근원을 탐색하고 나아가 가치론적 지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서사문학 연구의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와 서사의 관계를 이렇게 환원한다면, 전기소설이야말로 육체의 서사적 재현[2]이라는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해야할 핵심적인 갈래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기소설 가운데는 육체를 통한 쾌락의 추구와 그로인한 권력으로부터의 해방[3]에 관한 뚜렷한 지향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존재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남녀주인공이 서로의 육체를 통하여 애정을 확인하며 나아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기존 논의에서도 이점에 주목하여, 전기소설의 주인공들에게 육체란 성적 본성이 환기되는 장소이자 자기발견의 처소이며, 이는 거부할 수 없고 제어될 수 없는 강렬한 힘을 지닌 것으로 상정되어 있어 남성주인공이 여성주인공을 '보는' 최초의 순간, 정념의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히는 과정으로 표현된다고도 하였다.[4] 특히 전기소설에서

---

2) 재현(再現, representation)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다시(re) 보여주는(present) 행위'로 이해된다. 사진이나 이미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사진의 경우, 다시 보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틀에 끼워 맞춰야 한다. 그러므로 재현은 세계를 단순히 복사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재현도 이러한 의미의 재현이다. 필자는 <何生奇遇傳>이 남성주인공의 시각적 응시에 의해 여성주인공의 육체가 서사적인 언어로 재현(재해석)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재현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관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바란다.
일레인 볼드윈 외, 조애리 외 역,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8, 73-121쪽.
강내희, 「재현체계와 근대성」, 『문화과학』 24호, 문화과학사, 2000, 15-38쪽.

3) 정규식, 「<崔致遠>의 성적 욕망과 자기 정체성 확립」, 『고소설연구』 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29쪽.
이상구, 「고소설에 나타난 성적 욕망과 정절」, 『고소설연구』 2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14쪽.

4) 최기숙, 「17세기 서사문학을 통해 본 '성'의 문화 기호와 상상 구조」, 『고소설연

빈번하게 등장하는 남녀주인공들의 서로에 대한 육체적 '응시'는 성적 흥분의 원천[5]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세상에 대한 앎의 의지에 대한 반영[6]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는 전기소설의 전반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긴요하게 요구되는 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육체와 서사의 이러한 관계는, 전기소설의 주인공이 육체라는 타자를 통한 주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즉, 주체인 주인공과 대상(타자)인 육체의 관계는, 삶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지식을 향한 욕망의 주체와 세계의 진리를 내포한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관계와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육체에 대한 서사적 재현은 육체에 대한 탐구를 현실에 대한 앎의 의지로 전유하는 것이다.

전기소설에서 여성주인공들의 육체는 대부분 무언가에 의해 가려져 있다. 담장, 발, 주렴, 안개, 어둠 등은 여성의 육체를 가리는 기능을 한다. 여성이 이러한 것의 너머(안쪽)에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을 보는 것이 곧 여성의 육체에 대한 응시를 통해 여성의 존재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전기소설의 남성주인공들은, 세상과 단절되거나 고립된 폐쇄적인 상태에서 여성의 육체를 응시하고 나아가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과 여성을 새로운 영역으로 견인하여 유의미한 존재로 환원하며 세상과 소통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곧 자신과 여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구』 제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37쪽.

5) 육체를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 육체의 시각화는 단순히 성적 욕망의 기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문명화와 더불어 몸을 점점 더 숨기게 될수록 성적인 호기심이 강해지며, 이 호기심은 그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써 성적 대상을 완성시키려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보는 즐거움'이 어떻게 전환되느냐에 따라 예술적 승화로 발전하느냐 성적 도착으로 발전하느냐를 가름한다고 주장했다.(프로이드,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46-47쪽.) 즉, 육체에 대한 시각의 중시는 보는 것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세상을 알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의 지식에 대한 근원적 욕망이 예술적 승화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피터 부룩스, 앞의 책, 200-201쪽.

물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崔致遠>의 최치원과 팔랑 및 구랑, <李生窺墻傳>의 이생과 최씨녀, <萬福寺樗蒲記>의 양생과 여인, <何生奇遇傳>의 하생과 여인, <周生傳>의 주생과 선화, <韋敬天傳>의 위생과 소숙방, <雲英傳>의 김진사와 운영 등의 관계에서 확인되듯이 남성주인공들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육체를 응시하고 그것에 매혹당하여 결국 여성주인공과의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 특히 <何生奇遇傳>은 남성주인공인 하생이 어두운 숲 속에서 발견한 집의 담장 안에 있는 여인을 응시한 후, 성적 욕망을 바탕으로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여, 결국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불연속적인 존재들이 육체를 바탕으로 연속적인 존재들로 변화하는 과정을 핍진하게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작품은 육체의 서사적 재현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何生奇遇傳>을 대상으로 전기소설에서의 육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주자료는 소재영 교수가 영인하여 소개한 만송문고본(晩松文庫本) ≪企齋記異≫소재 <何生奇遇傳>[8]이며 보조자료는 박희병 교수가 校合・句解한『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소재 <何生奇遇傳>[9]임을 밝힌다.

---

7) 육체에 대한 탐색의 궁극에는 삶에 대한 진리나 인간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 자리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작품들에 투영된, 육체를 통한 존재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은 전기소설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분분이라 할 수 있다.

8) 이 자료는『企齋記異 硏究』(소재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원문과 더불어 번역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고는 주로 소재영의 번역문을 참조하였지만 필요에 따라 필자가 번역한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9) 박희병,『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Ⅱ. 육체의 서사적 재현 양상

주지하는 바와 같이, <何生奇遇傳>은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이 편찬한 ≪企齋記異≫의 네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企齋記異≫는 한문소설집으로 거기에는 <何生奇遇傳> 외에도 <安憑夢遊錄>, <書齋夜會錄>, <崔生遇眞記> 등이 있는데 특히 애정전기소설로서 뛰어난 면모를 갖춘 작품이 바로 <何生奇遇傳>이다. <何生奇遇傳>에 관한 기존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萬福寺樗蒲記>나 <武王說話>와 같은 서사물과의 대비,[10] 작품의 구조적 맥락,[11] 행복한 결말의 의미,[12] 서사적 긴장감,[13]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14] 창작 방법[15] 등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한 것이 사실이다.

---

10) 정운채, 「<何生奇遇傳>의 구조적 특성과 <서동요>의 흔적들」, 『한국시가연구』 2집, 한국시가학회, 1997, 174-196쪽.
소재영, 앞의 책, 70-73쪽.

11) 안창수, 「<何生奇遇傳>의 문제 해결 방식과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49호, 한민족어문학회, 2006, 155쪽.
최재우, 「<何生奇遇傳>의 '결핍-충족' 구조와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15집, 민족문학사학회, 1999, 199쪽.

12) 소재영, 앞의 책, 73-74쪽.
유기옥, 「何生奇遇傳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국어국문학』 101호, 국어국문학회, 1989, 135쪽.
유기옥, 『申光漢의 企齋記異 연구』, 한국문화사, 1999, 219쪽.
유정일, 『企齋記異 硏究』, 경인문화사, 2005, 210쪽.
엄기영, 『≪企齋記異≫의 창작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20~121쪽.

13)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고소설연구논총』(다곡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8, 202-203쪽.
박희병, 앞의 책, 40-41쪽.

14) 최재우, 앞의 논문, 216-219쪽.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360쪽.

15) 엄기영, 앞의 논문, 32-35쪽.

하지만 여전히 <何生奇遇傳>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남는다. 특히 <崔致遠>, <萬福寺樗蒲記>, <李生窺墻傳>의 맥을 이어 <周生傳>, <韋敬天傳>, <雲英傳> 등의 작품으로 전개되는 전기소설사를, 육체에 대한 응시를 바탕으로 한 육체적 관계로의 발전이 결국 앎에 대한 의지의 발로이며 그것은 다시 주체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 존재론적 자각으로 전개된다는 관점으로 바라 볼 때, <何生奇遇傳>에 대한 전기소설사적 평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런 측면에서 <何生奇遇傳>을 성적 욕망에 따른 남녀의 결합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논의[16]와 더불어 자녀서사에서 남녀서사로의 발전 과정을 나타내는 작품[17]이라는 논의들이 제출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만하다. 이러한 논의들의 핵심은 <何生奇遇傳>에 내포된 욕망의 원천과 갈등의 원인을 성적 욕망과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주장하는 육체에 대한 응시 및 성적 욕망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관점과 어느 정도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

<何生奇遇傳>이 여타의 작품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여성의 육체에 관한 새로운 서사적 재현이다. 이 작품에서 여성의 육체는 권력에 각인된 상태로 등장한다. 즉, 여인의 육체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해체된 상태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여성의 육체가 권력에 의해 사물화(事物化)[18]되는 것인데, 작품은 여기서부터 본질적으로 육체를 문제 삼는다. 그런 다음, 하생이라는 존재에 의해 여성의 해체된 육체가 응시당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과정은 해체된 육체가

16) 이상구, 앞의 논문, 14쪽.
17) 나지영, 「<何生奇遇傳>과 영화 <페넬로티>의 구조적 동일성 및 그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51쪽.
18) 이 말은 바따이유(죠르쥬 바따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89, 176-177쪽.)가 주장한 것이다. 그는 '어떤 존재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유용한 활용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사물화된다'고 하였다.

재구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채로운 점은 이 과정이 환유적 기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육체의 서사적 재현이라 관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장면인, 여인이 부모에게서 자신의 육체를 독립시키는 부분이다.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존재하던 여인의 육체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하생에게로 이동해가는 작품의 끝부분은 이 작품의 궁극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 존재로 위치하게 되는 여성의 육체가 결국 자신의 육체를 재구성해준 하생에게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남녀주인공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 행복한 결말로 끝맺게 된다.

이상이 <何生奇遇傳>에서 확인되는 육체의 문제들이다. 육체, 그것은 궁극적으로 육체 그 자체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서사적 언어에 의해 재현된 육체는 사회적·문화적 현실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육체는 사회와 문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 <何生奇遇傳>은 바로 육체에 함유된 이러한 문제가 당대의 제도나 권력과 결부되어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 육체의 사물화와 존재의 불연속

사물화의 핵심은 어떤 존재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활용의 범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물들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공물들은 근원적으로 사물화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생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을 제외한 생물들-인간 이외의 동식물-이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할 때, 그 존재들은 사물화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이나 이념, 제도, 지식 등에 예속되어 어떤 상위 존재에 의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때, 그 존재는 사물화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물화에 관한 바따이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사물이란 어떤 사람이 소유대상을 사물로 볼 때, 그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물건이나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사물화될 수 있는데, 그때의 그것들(사물, 동물, 사람 등)은 어떤 한 사람의 사물인 것이다. 특히 사람은 더욱 그렇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전제하지 않고는 사물일 수 없다.[19]

인용문에 따르면, 인간이 사물화될 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전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계가 사물화에 따른 현실적 갈등을 추동하는 근원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何生奇遇傳>이 흥미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물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작품의 경우, 가족이라는 제도와 사회적 권력에 의해 여인의 육체가 사물화되는 현상이 선명하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전기소설과 차별화된다고 할 것이다.

>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로 죽어서 여기에 묻힌 지 지금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오랫동안 권세의 요직에 있으면서 눈 흘김에 남을 상하게 함이 매우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섯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는데, 다섯 오라비는 모두 아버님보다 먼저 요절하고 제가 홀로 곁에 있다가 지금 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상제께서 저를 불러 명령해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큰 옥사를 맡아 무죄한 사람 수십 명을 살렸으니 지난날 사람을 해친 죄는 씻을 만하다. 그러나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 되어 보낼 수 없고, 마땅히 너를 보내 돌아가게 하리라'하기에 저는 절하고 물러났습니다.[20]

---

19) 바따이유, 위의 책, 178쪽.

20) '妾乃侍中某之女也 死而葬此 今已三日矣 吾父久居勸要 以睚眦中傷人甚衆 初有五子一女 而五娚皆先父夭折 妾獨在側 今又至此 昨上帝召妾命之曰 爾父頃鞫大獄 全活無罪數十人 可贖前日中傷人之罪 五子死已久不可追也 當遣爾歸 妾拜而退',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47쪽/86-87쪽. (작품의 인용에 있어 '/' 의 왼쪽에는 번역문의 쪽수를, 오른쪽에는 원문의 쪽수를 명기함을 밝힌다. 이하 동일.)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인의 육체는 여인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가족에 의해 예속된 존재이다. 그 결과, 여인의 육체는 사회적 권력[21]에 의해 희생되고 만다. 여인의 부모는 다섯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두었으나 그 자녀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대가는 자녀들이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육체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인 죽음으로 귀결되었다. 인간의 육체가 죄의 대가를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처벌의 수단으로 전락한 육체를 확인하게 된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여인의 죽음과 부모의 죄가 지닌 상관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암시의 수준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작품의 후반에 등장하는 다음의 인용문을 보면 여인의 죽음과 부모의 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길러, 막내딸로 자애하심 깊고 어린 소녀로 귀여워하고 예뻐하셨습니다. 집의 내실에는 술과 음식 훌륭했고, 잠자리 살피고 음식을 주관함에 걱정 끼칠 것 없었습니다. 상제께서 가혹하게도 쌓은 악행에 재앙을 내리시니, 망극한 은혜에 도리어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들 다섯은 모두 죽게 되고, 애통하게도 죄 없는 나도 무덤가에 가시덤불이 우거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22]

---

21)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의 옥사를,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기묘사화(己卯士禍)-과 연관시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하생의 불우함을 당시 사화로 희생되었던 선비들의 억울함과 결부시켜 해석하기도 하였듯이(최재우, 앞의 논문, 217-218쪽.; 윤채근, 앞의 책, 360쪽.), 여인의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또한 옥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의 죽음은 가족이라는 제도와 사회적 권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父兮生我 母兮鞠我 慈深季女 婉孌嫕姹 室家之壺 酒食是宜 問寢尸饔 庶無胎罹 上帝疾威 殃此積惡 罔極之恩 反胎伊戚 有子五人 宛其死滅 哀我無辜 墓門成棘',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51쪽/93-94쪽.

하생에 의해 현실적 육체를 회복한 여인이, 하생을 거부하는 자신의 부모를 설득하는 장면이다. 악덕을 쌓은(積惡) 주체는 부모인데 재앙을 받는 대상은 자신들이므로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인의 육체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획득하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제도와 사회적 권력에 의해 희생된 존재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자신의 죽음이 도리어 부모의 망극한 은혜에 누가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부모의 잘못으로 죽게 되었을지라도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신의 불효를 걱정하는 여인의 존재는 철저하게 가족이라는 제도적 틀과 효라는 당대의 이데올로기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여인의 육체는,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도와 권력이 각인된 상태로 존재하며 어떠한 목적을 위한 도구화에 머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육체의 사물화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23]

또한 육체의 사물화와 더불어 작품의 서두에서 주목되는 점은 존재의 불연속성이다. 하생과 여인 모두는 존재의 불연속에 놓인 상황에서 만나게 된다. 하생의 경우,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 수령의 추천을 받아 태학에 다니게 되어 청운 뜻을 품고 학업에 전념[24]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러한 하생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조정은 문란하고 과거는 공정하지 않았으므로[25] 하생으로서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각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존재의 불연속이라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가 설정한 삶의 지향을 실현할 수 없음을 인지한 하생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나 존재 방식에 대해 회의하게 되고 결국에는 점쟁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 물었던 것이

23)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崔致遠>은 팔랑과 구랑의 육체가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물화되는 현상이, <萬福寺樗蒲記>와 <李生窺墻傳>은 여인의 육체가 전쟁과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물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4) '旣赴國學 與諸生較藝 莫能或之先者 生以爲龍頭可捷 靑雲可步 驁然有高世之志',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41쪽/78쪽.

25) '時朝政旣亂 選擧亦不以公',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41쪽/78쪽.

다.[26]

여인 또한 하생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불연속에 놓인 상태이다. 여인에게 존재의 불연속은 육체의 사물화 그 자체가 분명히 말해준다. 사물화된 여인의 육체는 제도와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존재가 부정되고 나아가 불연속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것이 그녀의 육체에 부여된 의미이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하생과 여인은 모두 현실 세계의 불연속적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하생은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지만 세상의 부조리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연속될 수 없었으며, 여인은 부모의 죄로 인해 현실계의 삶이 종결되어 존재가 불연속적인 상황이었으므로 둘은 동일하게 불연속적 존재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何生奇遇傳>의 서두는 육체의 사물화와 존재의 불연속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하생은 여인을 만나게 되고, 작품은 육체의 사물화 극복과 존재의 연속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바따이유에 의하면 사물화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性)'이라는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성은, 인간을 동물처럼 예속시켜 완전한 사물화로 전락시킬 수 없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성적 충동은 우리로 하여금 사물이 되지 않게 하는 우리의 내부에 숨은 어떤 것'[27]이라고 주장한다. 바따이유의 이런 주장은 이후에 전개되는 <何生奇遇傳>의 작품 세계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 즉, 가족이라는 제도와 사회적 권력의 희생양이 된 여인의 육체가 사물화되어 환상계에 머물고 있을 때, 여인의 육체를 현실계로 견인하는 존재가 하생인데, 이 두 남녀주인공의 만남은 하생이 여인의 육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응시하면서 시작되기 때문

---

26) '一日 語同舍生曰 蔡澤所不知者壽 從唐生決之 吾問駱駝橋 有卜師 言人壽夭禍福期以日月 吾將就卜 以決狐疑 遂歸私第 探篋中 得寶藏金錢數枚 懷之而往',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78-79쪽/141쪽.

27) 바따이유, 앞의 책, 176-177쪽.

이다.

2.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과 환유적 재구성

여인을 향한 하생의 응시는, 여인의 육체가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육체의 사물화에 놓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사물화된 여인의 육체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생의 관찰은 사물화를 극복하도록 하는 성적 욕망으로서의 응시라 할 수 있다.

> 산에 달은 아직 뜨지 않았는데, 멀리 숲 속을 바라보니 등불 하나가 별빛처럼 깜빡였다. 사람 사는 집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길을 찾아 앞으로 갔다. 싸늘한 안개는 풀에 엉기고, 내린 이슬은 촉촉했다. 그곳에 이르니 달 또한 밝았다. 집 하나가 보였는데 작고 화려했으며 그림 같은 본체가 담장 밖으로 솟았고, 사창 안에는 촛불 그림자가 푸르게 빛났다. 바깥 문은 반쯤 열려 있는데, 사람의 자취는 없었다. 하생은 이상히 여겨 몰래 들어가 엿보니 나이가 열여섯 살쯤 되는 미인이 있었다. 각진 베개에 의지하여 반쯤 비단 이불에 가려진, 근심스런 얼굴에 고운 태도는 눈으로 바로 응시하기 어려웠다.[28]

하생이 여인을 최초로 응시하는 장면이다. 여인의 육체는 여러 겹의 층위 속에 놓여 있다. 밤, 어둠, 나무, 숲, 등불, 안개, 이슬, 집, 담장, 문, 사창, 베개, 이불 등은 모두 여인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면서 여인의 육체를 환유하는 매개물들이다. 이러한 매개물들은 대부분의 전기소설들에서 여인의 육체를 환유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인접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사화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29]

---

28) '山月未吐 望見遠樹間 孤燈點星 意有人家 索途前行 寒煙蔓草 零露瀼瀼 至則月亦明矣 見一屋 小而麗 畵堂高出墻外 紗窓裏燭影靑熒 外戶半開 稍無人跡 生異之潛入而窺 有美人年可二八 欹倚角枕 半掩錦被 愁容麗態 目難定視',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42쪽/80쪽.

29) 일반적으로 환유(換喩)는, 어떤 개체와 관련되는 다른 개체를 지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응시를 통한 육체의 서사화 전략은 일종의 '발가벗기'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따이유는 타자의 가려진 육체를 보는 것은 일종의 '발가벗기'와도 같다고 하였다. 그것은 대상을 둘러싼 외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대상 자체를 지향하는 내적 체험의 심연으로 가는 출발선이다. 그러므로 발가벗기는 자신에의 웅크림 너머로 존재의 연속성[30]을 계시하는 교통(交通)의 상태이며, 단절되고 고립된 폐쇄의 상태와는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31] 바따이유의 이러한 주장을 전기소설에 적용한다면, 남성주인공에 의한 여성의 육체에 대한 응시가 존재의 불연속성을 넘어서는 존재의 연속성을 위한 원천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죽은 영혼의 육체에 대한 응시와 성적 욕망을 통한 육체적 결합이 그 존재의 연속성을 지향하는 전기소설인 <何生奇遇傳>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가벗기와 서사화의 관계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육체를 서사화할 때, 관심과 욕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벌거벗은 몸뚱이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 보여지는 그대로의 모습, 즉 옷을 입고 여러 부속물로 장식되고 가려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에 접근하는 것은 옷을 벗기는 행위와 일맥 상통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벗기려는 노력은 도중에 중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 개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로 '인접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경우와 같이 환유적 개념은 우리에게 한 사물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갖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물을 개념화하도록 해준다.(G. 레이코프 외, 노양진 외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62-69쪽.)

30) 바따이유(앞의 책, 12-14쪽.)가 말하는 존재의 연속성은, 전 단계의 소멸 즉, 이전의 개체가 죽음으로써 획득되는 새로운 개체가 지니는 연속성을 말한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각각의 개체로서의 정자와 난자는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개체인 수정란은 외적으로는 불연속 존재이지만 그 안에는 연속성이 내포되어 있다. 바따이유는 이것을 존재의 연속성이라고 말한다.

31) 바따이유, 앞의 책, 17쪽.

서사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육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벗기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사물은 궁극적 결과보다는 그것에 도달하는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두었고 그러한 과정에 대한 흥미가 서사물을 정의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32] 이러한 서사화의 전략은, 서사물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발가벗은 육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각인되는 장소로서의 육체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된다. 따라서 여성주인공의 육체와 관련된 환유적 구성물들을 하나씩 발가벗기는 것은 의미에 대한 접근 의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전기소설에서 등장하는 남성주인공의 여성주인공에 대한 응시를 발가벗기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다시 앎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육체가 의미의 장소로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성적 욕망에 의한 이끌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육체의 유의미화는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소설에서 남성주인공은 여인의 육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시각화하며 그것을 통해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성적 욕망의 진정성이다. 성적 욕망이 충동적일지라도 그것이 텅빈 욕망이 아니라면 그것은 본연적이라 할 수 있다. 헛된 욕망을 좇아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진심의 발로에 의한 욕망이라면 진정성은 의심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국 육체가 의미의 장소로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면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성적 욕망의 추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깨끗한 방은 꾸밈이 없어 자연스러웠고, 잠자리도 곱고 아름다웠다. 방안에는 황금 빛 주렴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옥돌로 된 벼루와 채색 붓과 꽃무늬 종이 몇 폭이 있었고, 곁에는 은항아리에 담긴 향기로운

32) 피터 부룩스, 앞의 책, 56-57쪽.

> 기름과 연기가 그윽한 향로가 빛을 밝히면서 향기로웠다. 또한 술과 음식 모두 지극히 향긋하고 깨끗하였다.[33]

인용문은, 육체의 서사화가 환유적 기법을 통하여 여인의 육체로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 성적 욕망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깨끗한 방, 고운 잠자리, 황금빛 주렴, 옥돌 벼루, 채색 붓, 꽃무늬 종이, 은항아리, 향 먹인 기름과 향로, 그윽한 연기, 향긋한 술과 음식 등은 한결같이 여인의 육체를 환유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다. 육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주변의 것들을 통해 여인의 육체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순차적 접근의 최종 단계는 그 육체와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발가벗기는 이와 같이, 환유적으로 구성된 여인의 육체에게로 조금씩 접근해 가는 방식이며 여인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앎에 대한 의지로서 성적 욕망의 궁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궁극적 지향이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발가벗기를 통한 성적 욕망의 진정성을 확보하지는 못 할 것이다.

> 여자의 방을 보니 가까운데다, 또한 닫히지 않았고, 시녀는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처음엔 오로지 방안에서만 배회할 듯이 하다가 걸어 나아갔다. 손을 가뿐히 하여 창을 열자 여자는 바야흐로 초연히 근심스러이 앉아 마치 기다리는 바가 있는 듯 했다.[34]

하생은 여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성적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운우지정의 시[35]를 보내게 되고, 여인 또한 그에 화답하는 시[36]를 보내게

---

33) ‘淨室翛然 枕席鮮美 房內置金縷 案上有玉硯彩筆花牋數幅 傍則銀缸蘭膏 寶鴨沈煙 照耀芬馥 又供酒食 皆極香潔’,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44쪽/83쪽.

34) ‘見女之室 近且無閡 侍兒皆就睡 初若便旋然 履行遂進 輕手開窓 則女方悄然愁坐若有所俟 ’,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46쪽/85쪽.

35) ‘애끓는 하룻밤 외로운 베개의 꿈, 문득 양대에 이르러 길 없음을 안타까워하노라.

된다. 여인의 시를 받은 하생은 성적 욕망의 충만으로 위의 인용문과 같이 일종의 '머뭇거림'의 행위[37] 를 보이다가 여인의 침소를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성적 욕망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하생은 여인을 '본' 후에 여인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며[38]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여인의 육체에 도달하게 된다. 이후 둘은 곡진한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고 사물화된 여인의 육체는 성적 욕망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腸斷一宵孤枕夢 却憐無路到陽臺)',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45쪽/84쪽.

36) '잎은 아름다이 떨어져 마음을 울리니, 정이 없는 듯하나 다시 정이 있다오.(經心落葉琅玕響 却似無情更有情)',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46쪽/85쪽.

37) 많은 전기소설들이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남성주인공이 여성주인공을 엿보거나 담을 넘어 침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숱한 번민과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성적 욕망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8)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의 근원은 남녀주인공이 주고받는 언어(시나 말)이지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도 아는 것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서사물을 논의할 경우 항상 언어의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관점의 해석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은, 아는 것 혹은 깨닫는 것의 절대적인 방법이 언어라는 것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언어 이외의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주장은, 아는 것의 핵심에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자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아는 것'의 관계를 단순화할 수는 없다. 지각의 원천을 시각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각은 다양한 감각기관들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 그 자체가 지각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하지만 서사물에서의 지각의 원천은 청각이나 후각, 촉각 등에 비해 시각이 상대적으로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서사물의 전개에 있어 대상의 형상화가 소리(청각), 향기(후각), 촉감(촉각)보다는 모양, 행동, 색깔, 빛 등과 같은 시각적 요소에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기소설 역시 '보는 것'과 '아는 것'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갈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제목이나 내용에서 '窺'라는 어휘가 빈번히 등장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하생이 응시하는 사물화된 여인의 육체는 사실 환상계의 육체일 뿐이다. 반면 현실계의 육체는 땅에 묻혀 있다.[39] 그러므로 환상계의 육체가 현실계의 육체로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개가 필요하게 된다. 여인의 환상계의 육체를 현실계의 존재가 유일하게 응시한 존재는 하생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곡진한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이다. 즉, 여인의 육체를 응시한 후 그녀와 관계한 하생은, 여인의 육체와 가장 밀접한–인접한–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생은 현실계에서 여인의 환상계의 육체를 기표한다. 금척(金尺) 또한 마찬가지이다. 금척은 의미의 장소로서의 육체를 대신하는 물건[40]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지니고 있던, 혹은 그녀와 인접해 있었던 물건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인의 육체가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하생이 금척을 소지하여 여인의 육체를 환유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금척은 환상계와 현실계를 연결하는 매개로서 두 영역의 진정한 소통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환유적 재구성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물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9) 전기소설에서 육체의 서사적 재현을 문제 삼을 때, 환상계의 육체와 현실계 육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죽은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들은 환상계 육체의 문제들이다. 죽음의 지속 상태(불연속성의 상태)로 머물고 있는 현실계의 육체와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환상계의 육체는 항상 불완전하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작품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현실계의 육체로의 복귀를 꿈꾸거나 완전한 소멸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잠시 현실계의 육체에 머물다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으로 서사화된다. <崔致遠>의 경우는 완전한 소멸로, <李生窺墻傳>이나 <萬福寺樗蒲記>의 경우는 잠시 머물렀다가 소멸로, <何生奇遇傳>의 경우는 현실계의 육체로의 복귀로 귀결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작가의 인식과 세계관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0) <首揷石枏>의 석남가지와 <萬福寺樗蒲記>의 은주발 역시 이러한 기능을 한다. 그러한 것들이 작품의 전개에서 본연적 기능으로 작용되지 않고 단지 여인의 육체를 기표하는 존재로 기능한다는 것은 흥미 있는 점이다.

3. 육체의 탈사물화와 존재의 연속

<何生奇遇傳>에서 육체의 사물화를 극복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환상계의 육체가 현실계의 육체로 회복되는 단계와 현실계의 육체가 가족과 사회로부터 독립되는 단계가 그것이다. 전자는 남성주인공인 하생에 의해, 후자는 여성주인공인 여인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두 단계의 극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육체의 자율성이 성취되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획득하여 그 결과 행복한 결말이라는 구조로 완성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환상계의 육체와 현실계의 육체가 조우하는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 장면은 부모의 죄에 의한 사물화를 극복하는 탈사물화의 첫 번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 여인의 얼굴빛은 살아 있는 듯했고, 심장 근처는 조금 따스했다. 유모로 하여금 안게 하고서 수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과 의원의 손을 빌지 않아도 어긋나지 않았다. 해가 저물녘에 비로소 소생하여 부모를 보고서 가늘게 흐느끼더니 점차 기운을 차렸다.[41]

환상계의 육체가 현실계의 육체로 회복되어 재구성되는 과정은 육체의 탈사물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도 환유적 기법이 활용되었다. 하생과 금척, 생기가 도는 얼굴이나 따스한 심장들은 모두 여인의 육체의 부분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환유적으로 배치하면서 환상계의 육체가 현실계의 육체로 복귀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여인의 육체가 사물화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단지 완전한 탈사물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을 뿐이다. 현실계의 육체를 회복한 여인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제도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상계의 사물화가 현실계의 사물화로 변했을 뿐이다.

---

41) '女顔色如生 心下微溫 令乳媪擁而擧還 不假巫醫 勿撓而已 至日暮方蘇 視父母細哭一聲 氣且定',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50쪽/91쪽.

> 하생의 용모와 재기는 진실로 보통사람이 아닙니다. 사위로 삼는 데 무엇이 의심스럽소만, 단지 집안의 계보가 대등하지 못하고 일이 또한 덧없고 허망합니다. 인하여 혼인을 허락한다면 세론(世論)을 놀라게 할까 두렵소.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려 하오.[42]

하생에 의해 딸의 육체가 회복되었음에도 여인의 부모는 하생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인의 육체가 여전히 가족과 사회의 수단으로 사물화된 상태이다. 육체의 사물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장면이다. 여인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과 하생의 혼인을 허락할 것이라 판단했지만 여인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다. 죽었던 딸이 살아 왔고 그것을 도모한 존재가 하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부모는 여전히 여인의 육체를 가족의 사물로 여기며 하생과의 혼인을 거부한 것이다. 현실계의 육체가 여전히 사물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 지점이 바로, <何生奇遇傳>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육체의 탈사물화 과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사물화를 사물화로 극복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 갑자기 병을 핑계하고 음식을 전폐하자, 부모는 마음으로 딸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병이 된 바를 물었다.[43]

자신의 육체가 하생에 의해 '뼈에 살이 붙는 은혜를 입어 살아났다'(生死肉骨)고 믿고 있는 여인은 부모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혹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사물화된 자신의 육체를 또 다른 사물화를 통해 저항하는 방법, 즉 사물화를 사물화로 극복하는 양상이다. 여인은, 하생을 거부하는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수단으로

---

42) '何生容貌才氣 實非常人 妻之何疑 但家世不敵 事又夢誕 因而與之 恐駭物論 吾欲厚遣之',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50쪽/92쪽.

43) '遽稱疾廢飮食 父母心知女意 問疾所崇',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51쪽/93쪽.

삼아 육체의 완전한 탈사물화를 지향한 것이다.

> 담을 뚫고 지붕을 뚫어, 죽은 사람을 살려 뼈에 살을 붙였습니다. 황천에는 틈이 없으나 큰 굴에는 공간이 있어 화평하고 마음이 한가하니 그 즐거움 또한 컸습니다. …(중략)… 일찍 이럴 줄 알았다면 살아나지 않음만 못하였습니다. 공강(共姜)의 혼이 있으면 손을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44)

여인은 자신의 육체를 핍박하여 부모를 설득할 기회를 확보한 후, 인용문처럼 자신의 육체가 환상계에서 현실계로 견인된 것은 하생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와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하생과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현실계의) 육체를 포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전폐하여 육체를 혹사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시 현실계를 떠나겠다는 것은 자신의 현실계의 육체를 버리겠다는 말이다. 여인의 이와 같은 강력한 메시지는 부모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였으며 또한 하생과의 혼인을 허락받게 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장면을 부모의 반대와 여인의 저항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 반대나 저항의 거점에는 여인의 육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생과의 혼인을 반대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인이 아무리 하생과의 정이 깊다고 하더라도 여인의 육체는 그러한 것과는 무관하게 가족이나 가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죄를 대신하여 해체되었던 자신의 현실계의 육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생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와의 환상계의 인연이 너무나 지극했으므로 하생과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현실계의 육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여인의 아

---

44) '穿墉啄屋 生死肉骨 黃泉無閒 大隧有空 融融洩洩 其樂亦孔 …(中略)… 早知如此 莫若無生 共姜有魂 携手同行',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52쪽/94-95쪽.

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 나의 충성스럽지 못함과 자애롭지 못함이 너로 하여금 이에 이르게 했도다. 뉘우친들 장차 미치겠는가? 연분 맺어 스스로 운명을 정한 것으로 족하니 마땅히 너를 위해 이루어 주리라.45)

가문을 위해 여인의 육체를 사물화하려는 부모와 하생과의 결연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사물화하려는 여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여인이 부모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여인은 자신의 육체가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물화를 극복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육체에 대한 진정한 주체로서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이제야 비로소 여인은 '운명을 스스로 선택(自有定命)'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선택이 존중받는 존재로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육체의 완전한 탈사물화이며 또한 육체가 의미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육체의 완전한 탈사물화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존재의 연속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작품의 남녀주인공인 하생과 여인은 존재의 연속성이 결핍된 상황에서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현실 세계와의 부조화로 인해 점쟁이에게 운명을 점친 하생46)과 부모의 죄로 인해

---

45) '我之不忠不慈 使汝至此 悔將及乎 紅繩繁足 自有定命 當爲汝成之', <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52쪽/95쪽.

46) 작품의 서두에 등장하는 점복모티프를 작품의 서사적 긴장감을 반감시키는 요소라고 평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점쟁이에 의해 이미 결말이 제시되어 서사적 긴장감이 느슨해졌다거나 그로 인해 전대의 전기소설에 비해 작품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작품을 육체의 서사적 재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중요한 점은 점쟁이의 예언(明夷之家人)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바탕(육체)으로 어떠한 방법과 과정(사물화-재구성-탈사물화)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하생

죽음이라는 육체의 해체를 경험한 여인은 모두 존재의 연속성이 결여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인의 육체의 탈사물화는, 여인과의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 하생과 자신의 육체에 대한 주체적 위상을 획득하게 된 여인 모두에게 존재의 연속성을 충족시켜준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육체의 탈사물화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연관된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할 것이다. 하생과 여인은 작품의 서두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결핍된 상황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다가 두 존재는, 여인의 육체를 사물화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아가 완전한 탈사물화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육체가 부모의 죄나 가족(가문)의 번영을 위해 희생되는 존재에서 자신의 현실계의 육체를 회복시켜준 하생과의 결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론적 가치를 지향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여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비하는 바와 같이 하생은 작품의 서두에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자만하여 높은 지위를 얻어 현실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세속적 지위와 명예를 획득하는 것 즉, 입신출세가 욕망 추구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조정은 혼란스러웠고 과거는 문란하여 하생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생은 점쟁이의 예언을 듣고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여인의 환상계의 육체를 현실계의 육체로 견인하면서 여인과 혼인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생은, 세속적 지위와 명예라는 입신출세에 관한 욕망이 사라

의 출세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복모티프가 <何生奇遇傳>의 작품성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점복모티프는 독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읽기를 제공함(엄기영, 앞의 논문, 120-121쪽.)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으로 그 예언이 실현될까라는 긴장감을 유발시켜 안정과 긴장의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당대 독자들의 기호에 적합한 기능으로 작용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고 성적 욕망의 강화로 인한 여인의 육체의 탈사물화를 견인하는 존재로 변화했으며 나아가 완전히 탈사물화된 존재와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면서 스스로도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탈사물화되는 존재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47] 이처럼 육체의 사물화에 저항하여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 존재의 연속성을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분명한 지표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우리는, <何生奇遇傳>은 사물화된 육체가 성적 욕망의 응시를 통해 환유적으로 재구성되고 나아가 육체의 사물화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전개되는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개 과정에는 존재의 불연속이 존재의 연속으로 변화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何生奇遇傳>은 당대의 지배적 이념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육체의 의미에 저항하고 나아가 주체적 개인에 의해 새롭게 해석된 육체의 의미를 지향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재현한 전기소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작품

47) <何生奇遇傳>의 전체적인 구도는, 하생의 '출세담-애정담-출세담'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인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작품의 무게중심이 하생의 출세욕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만약 하생이 여인과의 애정욕을 자신의 출세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고 작품 속에 하생의 그러한 의도가 일관되게 등장했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욕망의 관계이다. 출세욕에서 애정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인을 향한 하생의 성적 욕망은 여인의 육체의 사물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여인의 지시대로 금척을 소지하여 현실계와의 소통을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을 출세욕을 위한 행위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생이 여인에게 '신혼이 이렇게 크고 즐거우니 구혼은 어떠하겠소. 그대와 더불어 옛 뜻을 새로이 기뻐하니 저절로 보통과는 다르게 되었소. 누가 남편과 아내 없으랴마는 나만이야 하겠소? 其新孔嘉 其舊如之何 吾與子新歡舊意. 自異尋常 誰無夫婦 孰如我員'(<何生奇遇傳>, 소재영, 앞의 책, 153쪽/96쪽.)라고 한 말을 참조한다면 하생은 여인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작품의 마지막에 제시된 하생의 현실적 출세담은 작품 전체에서 부가적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인의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을 통해 육체의 사물화를 극복하고 존재의 연속성을 획득하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 삽화적으로 덧붙여진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은 인간이 육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인식함으로써 그로 인해 당대의 지배적 이념을 극복하여 개별적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 간취된다는 점에서 17세기에 등장하는 전기소설의 연애지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48]

Ⅲ. 결론

서사물에 관한 논의의 핵심을 주체의 문제로 환원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육체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주체나 자아가 육체와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최근에서야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전기소설처럼 남녀의 육체적 관계가 서사 전개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갈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마음이나 정신, 혹은 이념 등의 부산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 또는 성관계를 이성에 대한 본성, 혹은 제도에 대한 탈주 등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만 이해하여 시대적 이념에 대항하는 주체의 근대적 의미 지향과 같은 해석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많은 서사물들은 구성물로서의 육체, 사회문화적 권력의 변용체로서의 육체, 대상으로서와 주체로서의 육체, 젠더의 육체, 생과 사로서의 육체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서사물들이 육체를 통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지반과 지향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

48)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 해당하는 <周生傳>, <韋敬天傳>, <雲英傳>, <想思洞記> 등의 작품들이 전대의 명혼모티프를 포기하고 남녀주인공의 육체적 관계와 연애 이야기를 중심으로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17세기 이후의 작가들에 의해 육체와 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서사적으로 재현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육체적 감각과 성적 욕망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시선도 있고, 그것을 통해 감각적으로 촉발되는 성관계를 운명 전환의 매개로 사유하기도 하며, 육체를 성을 발견하고 수행하는 자기의 동의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주인공에게는 육체를 통한 성과 사랑이 생애 전체를 주관하는 통로이자 상호 이해와 소통의 매개로 인지되기도 한다.[49]

따라서 서술적으로 구체화된 몸의 미학에 의하면, 서사물에서 육체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외견상의 현상일 뿐이며, 그 본질은 지식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저항과 해방, 사물화의 극복, 존재의 연속성 추구 등을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육체가 서사물의 중심 기호이자 서술적 의미들을 연결해주는 중심 고리로 작용하는 현상도 존재한다는 것이다.[50] 그러므로 전기소설을 육체의 문제로 작품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은 더욱 다양하고 치밀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崔致遠>에서 최치원과 두 여인의 육체를 통한 성적 욕망의 추구는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萬福寺樗蒲記>나 <李生窺墻傳>의 경우 남성주인공과 여성주인공의 육체에 대한 응시와 육체적 관계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존재의 연속성을 추동하는 매개가 육체였다는 점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육체의 서사화는 <周生傳>, <韋敬天傳>, <雲英傳>, <崔陟傳> 등의 조선중기 작품은 물론 조선후기의 많은 소설 작품들에도 일정하게 투사되어 다양한 형태로 전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何生奇遇傳>은 여성의 육체가 가족이라는 제도와 사회적 권력에 의해 사물화되어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지은 죄의 대가를 그 딸이 죽음이라

49) 최기숙, 앞의 논문, 56-57쪽.
50) 피터 부룩스, 앞의 책, 67쪽.

는, 가장 극단적인 육체에 대한 처벌로 대신한다. 그 과정에서 여인의 현실적 육체는 해체되고 만다.

하생이 여인을 만난 시점은 바로 이때이다. 육체의 사물화에 놓인 여인을 보게 된 하생은, 그녀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응시하게 되면서 여성의 환상계의 육체를 환유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서서히 여인에게 접근해 가는 하생은 여인과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여인을 상징하는 금척(金尺)을 소지해서 현실계로 나아가 여인의 부모들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재구성된 여인의 육체는, 현실계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물화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 여인의 부모는 딸의 소생을 도와준 하생의 신분이 마땅치 않아 딸과의 혼인을 거부한다. 그러자 여인은 육체를 혹사시키는 방법으로 부모의 뜻에 저항하며 하생과의 인연을 강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인의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고 하생과 여인의 혼인을 승낙한다. 사물화되어 있던 여인의 육체가 완전한 탈사물화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사회에 예속되어 있던 여인의 육체가 자신이 선택한 하생에게로 귀결되면서 제도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흥미있는 것은 존재의 불연속성에 있던 하생과 여인이 육체의 탈사물화와 더불어 존재의 연속성을 화보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에 이르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何生奇遇傳>에 형상화되어 있는 육체의 서사적 재현의 특징적 면모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내희, 「재현체계와 근대성」, 『문화과학』 24호, 문화과학사, 2000, 15-38쪽.

김종철, 「서사문학사에서 본 초기소설의 성립문제」, 『고소설연구논총』(다곡이수봉선생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88, 183-207쪽.

박희병,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1-1076쪽.

안창수, 「<何生奇遇傳>의 문제 해결 방식과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49호, 한민족어문학회, 2006, 151-192쪽.

엄기영, 『≪企齋記異≫의 창작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141쪽.

유기옥, 「何生奇遇傳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국어국문학』 101호, 국어국문학회, 1989, 111-140쪽.

유기옥, 『申光漢의 企齋記異 연구』, 한국문화사, 1999, 1-346쪽.

유정일, 『企齋記異 硏究』, 경인문화사, 2005, 1-340쪽.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1-496쪽.

나지영, 「<何生奇遇傳>과 영화 <페넬로티>의 구조적 동일성 및 그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7-69쪽.

이상구, 「고소설에 나타난 성적 욕망과 정절」, 『고소설연구』 제2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5-36쪽.

정규식, 「<崔致遠>의 성적 욕망과 자기 정체성 확립」, 『고소설연구』 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5-33쪽.

정운채, 「<何生奇遇傳>의 구조적 특성과 <서동요>의 흔적들」, 『한국시가연구』 2집, 한국시가학회, 1997, 171-198쪽.

최기숙, 「17세기 서사문학을 통해 본 '성'의 문화 기호와 상상 구조」, 『고소설연구』 제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 33-63쪽.

최재우, 「<何生奇遇傳>의 '결핍-충족' 구조와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15집, 민족문학사학회, 1999, 197-227쪽.

G. 레이코프 외, 노양진 외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1-298쪽.

일레인 볼드윈 외, 조애리 외 역,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8, 1-397쪽.

죠르쥬 바따이유, 조한경 역, 『에로티즘』, 민음사, 1989, 1-317쪽.

프로이드,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3, 1-407쪽.

피터 부룩스,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지성사, 2000, 1-532쪽.

<Abstract>

A Narrative Representation of the Body in 〈Hasaengkiujeon〉

Chung, Ku-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 a narrative representation of the body which is storied in <Hasaengkiujeon>. Here, <Hasaengkiujeon> is a Jeongi novel that was written by Shin Gwang Han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In the novel, a woman experiences having her body just objectified as a means by institutional family and social powers. She is extremely punished into death on behalf of her parents who committed a crime. This makes her real body disorganized. At this time, Hasaeng meets her. Seeing her body objectified, Hasaeng comes to have a sexual desire for her and , in a metonymically, restructures her illusive world and body.

He gradually approaches her and finally has a sexual intercourse with her. Carrying 'geumcheok', a golden ruler symbolizing her, he returns to the real world and then attempts to communicate with her parents. With her body restructured, the woman returns to the real world, too. Nevertheless, the body still remains somewhat objectified. Despite Hasaeng helped revive their daughter's life, the parents rejects marriage between him and their daughter because he was lower in social status.

Then the woman drives herself relentlessly, resisting to her parents

and stressing her close relationship with Hasaeng. In this case, the parents reflect on what they did to Hasaeng and finally accept marriage between him and their daughter. This is the very moment when the objectified body of the woman is completely disobjectified. In other words, the women is liberated from institutions or powers as her body, which was subordinate to family or society, comes to belong to Hasaeng who she found herself.

Here,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Hasaeng and the woman, who were discontinuous in existence, come to secure the continuity of their existence through the so-called body disobjectification and finally reach a firm establishment of their own identity. This is the very point of <Hasaengkiujeon>, that is, a narrative representation of the body.

Key Words : <Hasaengkiujeon>, body, narrative representation, objectification, metonymic restructure, disobjectification, sexual desire, identity

▌논문접수 : 2009년 10월 30일
▌심사완료 : 2009년 12월 5일
▌게재확정 : 2009년 12월 10일